

농업경쟁력 강화·농민 소득향상 박차 나주 농촌에 활기 돈다



로컬푸드 구축 등 잇단 공모사업 선정 농업인 월급제·농기계 임대사업 활발 자치농정 등 나주만의 정책 개발 박차

테나주시가 농업 관련 공모사업 등 각종 농업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8월 나주시에 따르면 농업 관련 주요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5년 ▲상생 로컬푸드 체계 구축 28억원 ▲농촌지역 활력증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2억원 ▲농어촌 축제지원(문평면 명하 쪽 축제) 3000만원 등 3건 30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또 올해에도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세지농협 APC 개보수) 6억원 ▲도시텃밭 조성 5000만원 ▲농어촌 축제를 위한 2000만원 등 6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빛가람동에 구축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지역내 소농과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순환체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로컬푸드직매장은 5월 말 현재 관내 279농가와 28개 업체가 참여한 농산물 268개 품목과 97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10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개장 후 방문객만 5만 5000여명에 이르며 소비자 회원도 2700여명을 확보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나주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과 일손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도 집중하고 있다.

나주시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류형 거주공간을 조성하는 하드웨어와 이주단계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나주시는 또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 혜택을 받는 농민만 지난해 162명에서 올해는 689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큰 인기다.

나주시는 농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일손 부족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본점 1개소와 금천과 봉황, 문평분점 등 3개소에 111종 966대의 임대 농기계를 배치했으며, 지난해 이용건수만 8063건에 이른다.

나주시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도 만족도가 높다.

시는 올해에는 전년보다 39개소가 늘어난 349개소를 대상으로 공동급식사업을 지원하며, 상반기에만 171개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다.



빛가람 상생 텃밭에서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강인규 시장.

나주시는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모든 학교의 급식재료에 대해 지역 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고등학교의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를 전액 부담하는 '친환경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한발 앞선 농정을 펼쳐 타지역 농촌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대도시 유희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농 상생 드림 일자리 지원센터도 활발히 기능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친환경과학농센터는 '미생물배양실', '도양검정실', '병해충 예방 분석실' 등을 갖춰 과학농기반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과 축사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농업정책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주 실정에 맞는 '나주형 자치농정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나주만의 정책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는 비옥한 토질 덕분에 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연중 풍부하게 생산하는 호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라면서 "우리나라 대표 농업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 문화관광 해설 우리에게 맡기세요” 문화관광해설자협회 창립

나주지역 관광안내 관련자의 명칭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동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교육기관에 따라 해설사·해설가·이야기꾼으로 나눠 각자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탓에 혼란을 겪던 명칭이 단일화되는 것이다.

나주시와 나주시문화관광해설자들은 지난 2일 나주시민회관에서 나주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이틀 단체 명칭을 '나주시문화관광해설자협회'로 하고, 호칭을 '나주시문화관광해설자'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현재 나주에서는 전남도교육수료자는 해설사, 나주시교육수료자는 해설가, 향교 교육 이수자는 이야기꾼으로 나눠 불리며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나주시문화관광해설자협회를 이끌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초대회장으로



나주시와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자들은 최근 나주시민회관에서 '나주시문화관광해설자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최영(66)씨가 선임됐다.

최 신임 회장은 8일 “조만간 사회단체 등록을 마치고, 비영리법인으로 지역관

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 시립예술단” 창단... 문화행복지수 높인다 3개 예술단 통합

나주시가 시립예술단의 제2 창단을 선언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시립국악단과 나주시립합창단, 나주소년소녀합창단 등 122명의 단원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립예술단 창단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창단은 기존에 운영해 온 국악단과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예술단을 빛가람혁신도시 조성과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위상에 걸맞게 통합·확대 개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창단은 지난 2005년 나주문화원이 창단한 나주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화해 지역 청소년 음악인재를 시립합창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립예술단은 그동안 읍면동민의 날 행사, 관내 경로당·복지회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활발히 공연해 왔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과 2천년 나주역사를 공연작품으로 제작한 ‘영산연가’ 공연 및 시민합창단·시니어합창단과



의 합동합창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립합창단 연습실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시민소통콘서트’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대표적인 시민 체감 문화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시립예술단은 올해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시립예술단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3개의 예술단별로 특화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립국악단은 시민대상 무료 감상과 청소년 취태대 육성, 나주만의 민속예술 전승과 공연 등으로 시민 결을 찾는다. 시

립합창단은 합창과 중창 등 현장방문 공연과 마을합창단 활동 지원, 각계 각층의 시민을 초청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행복한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문화예술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은 문화도시 나주의 척도이며 시민에게 문화행복을 배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2의 창단을 계기로 문화에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시민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원도심 지중화 2단계 야간공사 시작...9월 완공 예정

나주시가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원도심 지중화 사업 2단계 야간공사를 시작했다.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일부터 중앙로 4거리 ~ 나주터미널까지 구간에 대해 지중화 야간공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는 나주 원도심 지중화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을 40%로 나주시 중앙로 및 나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2.3km구간은 오는 9월말 완공 예정이다.

나주시와 한전은 지중화사업 시행 전 실시된 주민설명회에서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인근 상업지역과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공사로 결정했다.

야간공사 시행 구간은 나주시 중앙로 4거리에서 나주터미널 사이 0.5km로, 도로폭이 8m로 좁은 반면 차량 통행량 및 인근 상업시설이 많은 곳이다.

나주시와 한전은 해당 구간의 지중화사업과 연계해 나주시 하수관정비사업을 병행하는 등 도로 이종굴착에 따른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창사 29주년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추천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핑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용접장,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달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 062-952-6633 **인산공점**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제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